

# 국제 가정 생활 지도자

## 강습회에 다녀와서

최 이 순



농림부 가정학부와 I.C. 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共同主催로 미국 안에 있는 여러대학교 “Land Grant College)의 協力을 얻어 국제 가정 생활 지도자 회의 (International Developing Leadership in Home Economics Program)가 三個月間열리었는데 13명의 대표가 9개국에서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필자, 표경조, 주월영의 세사람이 참여하였습니다. Columbia University의 가정학부 전학장이었던 Dr. Helen Judy Bond (본드박사)를 지도자로서 모시고 University of Illinois, (이리노이대학교) West Virginia University,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Minnesota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가정학 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수법의 현향을 강의와 실습견학으로 보았고, 연구 결과를 교도부 Extension staff)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가정 생활에 보급시키는 것인가에 관한것과 가정학 교도사업 (Home Economics Extension program) 직접 시찰하며 훈련을 받

었는데 때를 같이 하여 제49회 미국 가정학회 대회 “American Home Economics Asso. Convention”가 Philadelphia에서 개최되었고 제9회 국제 가정학회 대회 “Ninth International Congress on Home Economics”가 Maryland 대학에서 개최되어 두大會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 회의에 참석한후 가장 부럽고도 감격스럽게 느끼고 본, 몇가지 요점을 간단히들면 ① 미국에서는 가정학 교육이 舉國的의요 舉族的으로 인식되고 있다.

좀 더 나은 국민생활을 위하여 정부로서 대학의 가정학교육을 돕고, 지역사회를 돕고, 개인의 연구를 도와 가정학 교육이 산 생활교육이 되어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가정생활 요구에 또는 개인생활에 직접 지침이 되도록 지도하는데 협력한다. 가정생활이 편하고 쉽게 合理化되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도록 지도하여 가정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는 점을 보았으며 대학은 대학으로서 가르치는 이외에 가정 생활을 토대로하여 과학적인 연구

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보도되고 있다. Extensoin 사업은 가정과 개인, 청소년 지도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Maryland에 있는 Belts Ville Research Center에서는 농사 산림에 대해서도 연구하나 그것은 나의 分野가 아니니 여기서는 생략키로한다. 그곳에서 연구하는 衣食住에 관한 여러면으로 연구된 결과는 가정주부와 각단체에 직접 보급되어 생활화되고 있으며 Washington D.C 에 있는 National Housing Center를 보드라도 그 규모가 크고, 그 연구한 결과를 실지로 진열하였는데 대학에서 연구한것과, 각 공장 회사에서 연구된 것을 그대로 일반을 위해 공개되어 가정 생활에 참고를 삼게하고 있으며 소책자 출판으로 혹은 도서관의 열람으로 국민생활의 주 생활의 새 방법을 직접 돕고 있음을 보았다.

West Virginia State에 있는 Monogehela power Company의 견학은 이채였다. 이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을 교육하며 좀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농촌과 도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동시에 「대학 교육을 협력하여 그 지역에있는 여러대학의 실험실에 전기 기구를 매년 새로 무료로 바꾸어 놓아서 새로운 것으로 실습하게 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예배당 부엌이나 Women's Club을 위해서도 사용 방법은 勿論 기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부녀자들의 활동을 돕는다. 4H club Camp에나 Future Home maker Camp 같은 데 부엌, Sewing center, Laundry Center, 照明 등에 대한 건물들을 시설해 놓고 청소년 소녀들이

직접와서 Camping하는 동안에 실습을 하도록 가정학 전공 지도자를 파견하여 가르치고 있다. 送電 만이, Power Co.의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 가정생활의 간편화를 위한 연구와 보도 사업이 또한 중요하였다. Minnesota 주에 있는 Farm Magazine 社의 초대로 점심을 먹었는데 그 곳에도 역시 농촌 가정의 생활 간편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연구하고 있었다. 잡지에 실릴 기사를 위해 특히 음식만드는법 (Reciepe)인 경우는 그것을 실제로 실습해 보고 試食을 하기 위한 모범적인 부엌이 있고 식당이 있고 또 농촌 부인들이 나와서 편리한 부엌에 대해 참관하고 실습하게 되어 있어 글로만 가정생활의 향상을 돕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교육하고 있음을 보았다. 가정생활이 어느 것에 관련 않됨이 없지만 필요한 곳에는 어디를 가나 이러한 식으로 연구되어 있고 그 결과를 가정생활에 보도함을 보았다. "Better Living, Easy Living" "가정생활의 향상"이 그네들의 moto가 되어 매일 이 목적을 위해 저국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고 있음을 보았다. 가정학 교육은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된 학문이요 실제적인 과학이었다. 교육은 勿論 공장이나 회사나 어떤 기관이든지 가정생활에 관련된 곳에서는 대학과 협력하며 좀더 나은 물건을 만들기에 연구가 거듭되고 장학금을 주어 인재를 양성하며 그결과를 보도함을 보았다. 미 가정학회에서나 국제 가정학회에서 보면 각국대표, 그 많은 회원들을 큰 연회에 초대하고 자기네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선전한다. 특히 Yeast Co.

와 Cambel Soup Co. 같은데서와,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이 국제 가정학회, 새 가정 학회를 도아 자기네들을 선전하는 동시에 또한 가정 생활에 공헌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라, 사회, 학교, 三位一體가 되어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가정학 교육에 협력하는 것을 보았고 일반국민의 협조하에 날로 좀 더 나은 가정생활의 발전됨을 보고 부럽기도 하려니와 앞으로의 하여야 할 의무감도 느끼었다.

②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구한 것을 배우고 보아 原則을 얻는 것도 중요하나 앞으로 우리는 우리 生活을 토대로하고 우리의 문제를 찾고 우리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가정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점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본다. 한 나라의 부강과 한 나라의 건전한 국민을 좌우하는 가정 생활을 발전하기에 전역량을 기우릴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급선무인 것이다.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 생활 양식과 생활 철학에 입각하여 연구하여 좀 더 나은 간편한 가정 생활을 위한 衣食住 전반에 걸쳐 연구할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실로서는 대학을 협력하여 실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문제를 찾고 국민에게 그 문제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각 대학 가정학 교육을 통하고 사회에서 협력하여 우리도 남과 같이 가정 생활의 현상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고 보도 되어지기 바람직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바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외에 Research 나 Rublic를 위한service는 거의 없다고 할만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대학에서 부터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정학 교육이 男女학생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가정생활은 여자 혼자하는 곳이 아니다. 남녀가 협력할때 우리 나라의 가정생활의 개량이 있고 향상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국서는 男女가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으나 일단집에 오면 같이 일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향상이 빠르다고 보았다.

③ 우리 나라는 80% 이상이 농촌인데, 우리 나라의 농촌은 너무나도 내버려두는 감이 있다. 1957년에 우리 나라에도 시작된 가정교도 사업(Home Economics Extension work)은 경하 할 일이며 이 생활 교도사(Extension worker)들에게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주고 연구 결과를 주도록(Training Center) 연구기관이 있어 위에 말한 연구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을 우리 농림부에서만 도울것이 아니라, 대학교육과 협력하고 육성하여, 앞으로 우리 농촌 가정 생활을 향상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국가와 사회 일반 국민이 가정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협력하면 우리 가정 생활도 편하게 되고 기쁜생활을 하도록 되리라 믿는다. 둘째로는 우리국민의 각성이다.

④ 이번 三개월간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국제회합이 많을수록 세계평화는 빠르리라 더욱 느끼었다. 이번 회합을 통하여 각 나라에서 온대표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가 생기어 각국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국제 가정학회 대회에는 59개국 대표 1010명이와서 일주일동안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나 특히 International Leadership training Course에 온 13명은 한 가족과 같이 가까워 졌고, 셋개월동안 각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좀더 배우려는 의욕 아래 생활을 같이 함으로 서로의 이해가 두터워 졌음은 사실이다. 한 나라에서 여러사람이 모여 훈련받는 것 보다는 여러 나라 대표가 모여 같이 훈련을 받게한 I.C.A.의 계획은 대단히 현명하였다고 본다. 각 나라 대표들의 마지막 회의에서의 의견은 한 나라에서 여러 분야의 남녀가 와서 가정생활 Program을 같이 보면 돌아가서 일하기가 쉽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⑤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로서 국민생활을 이끌어 나간다고 느끼

었다. 그네들의 Program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것을 교수회 혹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보았고 또는 어떤 회합에서든지 종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더욱 느끼었다. 기독교적인 협력의 정신, 책임감, 근실과 정직이 연구와 교육과 보도 사업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었다. 물론 미국에도 어두운 면이 있고 문제되고 나쁜점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세상에 어데나 있을것이니, 향상하려는 노력과 나은것을 향한 힘이 크니 그 나라는 발전하고 있다고 보았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때 방관적이 아니고 지극적 과제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에 우리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빌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다.